

작업노트

나는 어린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외가에서 자란적이 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려 어머니가 보내신 편지지나 땅에 낙서를 하고 벽에 수없이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다. 그 시절 낙동강 근처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은 설탕처럼 부드러워서 흙 만지는 것을 무척 좋아했으며, 이런 흙에 대한 애정은 오늘날 나의 작업의 모티브가 되었다.

대지와 자연의 변화, 생성, 소멸의 과정은 내게는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켰으며, 대지에 대한 생각들은 나의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어머니의 품처럼 모든 것을 품어주는 대지 와 자연의 섭리를 자연스럽게 알아 가면서 아무리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생명을 가진 것들은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고, 나는 작업속에 이런 상징과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의 접점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엇인가에 대해 천착했다.

그리고 TV나 야구경기, 영화, 또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일반적으로는 주인공이나 직면한 중심적인 상황에만 눈길이 가거나 집중되기가 일쑤지만, 순간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엑스트라(Extra)의 모습이나 행동, 장면, 혹은 자연의 현상들이 순간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숲도 마찬가지이다. 숲은 표면적으로는 녹색의 나무들로 채워진 산의 일부라고 생각되지만 숲 속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꽃, 동물, 벌레, 미생물 등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존재하며 바람, 공기, 수분, 빛 등의 자연의 현상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존재했지만 사라지는 세계에 대한 생각은 사라짐, 흔적 등의 상징으로 이어졌다.

숲은 생명의 텃밭인 동시에 소멸의 귀착점이기도 하다. 숲 속의 많은 생명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 갈등과 화합, 배려를 통해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인간의 삶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내가 숲을 그리는 이유이며, 숲은 회화적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기에 나는 숲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페인팅 한다.

그래서 나의 작업방식은 자연에서 포착된 형상들을 화면 위에 부유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표현하기를 즐기며 이러한 방식은 공기의 움직임을 느끼게 하려는 시도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여행을 하게 한다.

나의 작업의 특징은 숲에 가려져 있으나 엄연히 존재하거나, 존재 했었던 어떤 사실들의 흔적과 자연의 신비한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일루전처럼 색채의 층을 형성하여 자연의 속내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있다. 수없이 많은 붓자국과 색채를 중첩 시켜서 드러나진 않지만 존재하는 형상이나 존재했던 사실들의 흔적을 표면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오래된 벽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벽화야 말로 사라져버리는 순간을 기록한 흔적이라 할 수 있는데 벽화를 보면 마치 내가 여기에 존재 했었다고 안타깝게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언젠가부터 벽화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고구려시대의 벽화나 이탈리아 에트루스칸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색채감과 회화적 상징이나 특징, 요소들에서 차용해온 회화적 표현방식과 삶과 죽음에 대한 유희적인 태도 등을 나의 작업의 매개체로 삼아 회화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시도해 왔다.

결론적으로 나는 작업을 통해 숲 속의 동, 식물을 포함한 생명을 가진 작은 존재들의 가치와 자연의 현상들이, 비록 미미한 존재들이지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숭고히 살다가 어느새 사라져 버린후에도 오랜 세월 거름처럼 퇴적하거나 흔적을 남기며 다음 세대를 위한 바탕이 되어준다는 아름다운 희생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삶과 죽음의 윤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한 점 먼지 와도 같지만 생명의 신비에 대한 사색의 과정은 아름답고 유의미한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깊이 있는 회화적 완성도를 추구하여 나의 작업속에 생명의 존엄과 위로를 담아 내고 싶은 것이다.

박두리 작품에 대한 에세이

I walked into Duri Park's studio in the heart of New York's Chelsea art district every week for a month. I was able to observe Park's paintings from conception to completion; they seemed to grow like an alien, digital fungus. The paintings are a hybrid of nature and synthetized man-made shapes. These paintings are odd in the most wonderful way. While standing in front of the paintings I began to shut out the noise of the city and let the din of the paintings open up to me. These painting filled me with a buzz of saturated hues and different shapes and sizes, of intricate mark making. The paintings give off a suggestion of a steady grid that teeters towards the edge of chaos. These are futuristic landscapes that have a retro feeling of a time that I can't put my finger on. I get lost in the structures that Park creates. As Park states, "*The essence of my work is to show nature's intention through its peculiar perceptual depth. Using the forest as my subject, through a combination of reason and meditation, I explore this environment creatively by building layers of color.*"

These paintings display an artist who has spent many years looking at nature and art. There exists within the paintings a hidden infrastructure of cubism and impressionism, a feeling of modernism that is implemented throughout the paintings and interestingly enough, denied at the same time. Park is in some ways a very traditional artist who prizes above all the way paint is used and loved by a long history of her painting forbearers. She is bringing all the opportunities and mark-making of the medium into play and puts out the welcome mat for all to enter into this fantastical world she has constructed. I am drawn to this passion of nature and the physicality of the paint.

Steve DeFrank Painter/Professor at the School of Visual Arts

Lives and works in the Bronx, NY

나는 뉴욕의 중심에 위치한 첼시 아트 district에서 한달동안 매주 두리의 작업실에 갔다. 두리의 작품에서는 디자인의 컨셉부터 완벽함을 볼 수가 있었다. 마치 디지털 Fungus처럼 자라나는 것 같았다. 작품들은 자연과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모양의 합성이었다. 이 작품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달랐다. 작품들 앞에 서 있는 나는, 도시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작품들은 혼돈의 카오스의 정점을 향해 불안정하게 뻗어있는 steady grid의 느낌을 풍긴다.

이것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레트로적 감성을 가진 미래적 Landscape 이었으며, 나는 두리가 창조한 세계에서 길을 잊었다.

두리는 말한다.

"내 작업의 본질은 숲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하여, 독특한 색채의 층을 만들어 회화의 깊이감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 자연의 속내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작품들은 오랜 기간 자연과 미술을 바라본 한 Artist를 반영한다. 페인팅 속에는 비밀스럽게 Cubism과 Impressionism이 투영되어 있고, 존재함과 동시에 사라지는 듯한 모던함이 존재한다.

두리는 회화의 유구한 역사를 사랑하고 이용할 줄 아는 아주 Traditional 한 작가이며, 그는 그가 구축한 환상적인 세계관을 표현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가능성과 기법, 재료를 도입한다.
나는 이런 두리의 자연에 대한 열정과 회화적 기법에 매료되었다.

스티브 프랭크 / 화가, 교수 (스쿨 오브 비주얼아트, 뉴욕)

브롱스, 뉴욕에서.

박두리 작품에 대한 평론

"<대지적 모성성에 대한 회화적 탐구>, 윤 진섭(미술평론가/호남대 교수)

박두리의 그림에서 대지의 모습은 비옥한 토양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한 결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시점을 취하고 있다. 말하자면 하늘에서 땅을 조감하는 방식인데, 작품을 감상할 때는 감상자의 시선이 벽에 걸린 그림과 평행을 이루어 '+'자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박두리의 작품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 방식은 가령, 선사시대의 유적지인 남미의 거대한 대지예술 작품이나 나바호 인디언족의 모래 그림과는 다른 것이다. 이들의 작품이 평평한 대지 위에 원래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반면, 박두리의 작품은 캔버스를 벽에 거는 기준의 관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대지를 단순히 작품의 소재로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대지" 연작에는 크로스(+)형의 시점이 교차하고 있다. 하늘에서 바라다 본 시점과 대지에서 자라는 풀의 이미지를 결합시킨 것에서 숲이나 강을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중략.

"<길 읽기 혹은 길 잊기>, 강 선학/ 미술 평론가

박두리 작품에서 먼저 눈에 띠는 것은 화면을 종횡으로 거칠게 지나가는 봇자국의 선과 어눌한 색상과 그 사이로 세련된 의외의 색감과 선묘들이다. 그녀의 화면에서 가로 세로로 질러가는 선은 화면 전체를 긴장되게 하는 중요한 일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거친 몇 개의 선은 화면 내의 형상과 색상들을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익속한 사물들을 해체하는 역할도 한다." 중략.